

2018 새해 새 설계

박태선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농산물 제값받아 소득 5천만원시대 열 것”

사전 수급조절로 채소가격 안정

벼 직파재배·농기계 보급 확대

흙쇼핑 진출 등 판로 다각화

팜스테이 등 6차산업 활성화

“농심(農心)을 가슴에 안고 농업인 결으로, 영농현장 속으로 달려가 농협다운 농협, 역동적인 전남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태선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오는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농촌이 풍요롭고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우선 경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농협은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선제적 수급대책으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유통농산물 품목협의회와 주산지협의체를 육성해 영농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인 중심으로 운영해 갈 것”이라며 “채소가격 안정제를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파종기부터 사전적 수급조절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품목별 광역연합사업을 확대해 철저한 품질 관리로 질 좋은 농축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하는 것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또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벼 직파재배 확대와 새로운 농기계 보급은 물론, 쌀값 안정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 효과가 탁월한 벼 직파재배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뭄극복을 위한 건답파종 등



다양한 유형의 직파재배를 추진할 방침으로, 효율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다양한 농기계를 보급해 농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생각이다.

그는 “올해는 미국종합처리장(RPC) 쌀 판매 목표액 4000억원을 기필코 달성해 전남쌀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며 “TV홈쇼핑 진출을 통해 전남쌀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경로를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농협의 광역쌀브랜드 ‘풍광수도’에 대한 고가브랜드 정책을 통해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문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해 도농교류를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고령농업인을 돕고, 유휴농지의 활용도를 높여 환경보전과 수자원 확보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작업 대행사업 면적을 지난해 200ha에서 400ha로 확대하고 표준화된 포전관리로 우수 농산물을 지속 생산해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과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무엇보다 ‘국민의 농협이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농업인은 물론 농업인 단체, 고객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소비자와 고객이 믿고 찾는, 신뢰받는 전남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을 지역대표 협동조합 금융으로 성장·발전시키고, 종합컨설팅을 확대 실시해 농·축협 자립경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 농·축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선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활성화해 홀몸노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돌봄대상자 및 돌봄도우미 모집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주거위생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확대도 노인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여주고 다문화가정의 농촌생활 정착과 성장을 위한 분야별 교육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농업·농촌·농업인이 없는 농협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전남농협 임직원 모두와 함께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어 가겠다”며 “전남농협이 ‘농도 전남’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3.28 (+15.76)

↑ 금리 (국고채 3년) 2.14% (+0.04)

↑ 코스닥 839.51 (+11.48)

↑ 환율 (USD) 1066.00원 (+3.30)

코스닥 15년만에 830선 고지

839.51 마감...11.48%P 올라

코스닥지수가 15년여 만에 처음으로 830선을 넘어섰다.

8일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48포인트(1.39%) 오른 839.51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8.04포인트(0.97%) 오른 836.07로 개장한 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폭을 조금씩 키운 끝에 840선 턱밑까지 올랐다.

이날 종가는 2002년 4월 19일 종가 858.8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830선을 밟은 것도 15년여 만에 처음이다.

코스피도 이틀째 오르며 2510선에 안착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5.76포인트(0.63%) 오른 2513.28에 거래를 끝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18포인트(0.53%) 오른 2510.70으로 개장한 뒤 한때 소폭 하락 반전하기도 했으나 외국인 매수세에 상승 흐름을 되찾았다. /연합뉴스

세계 산업용레이저 석학들 광주로

11~12일 광주홀리데이인호텔서 세미나...신기술 소개 등

세계적인 산업용레이저 전문가들이 8년 연속 광주에 모인다.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영선) 산하 레이저연구센터는 ‘산업용 레이저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세미나 첫날인 11일에는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신융산업(Emerging Industries by Laser Technologies)’을 주제로 최신 레이저 기술 트렌드가 소개된다.

레이저 분야 세계 최고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연구소와 독일, 미국의 4개 기업 핵심 책임자가 디스플레이, 의료, 초고속 광섬유, 제4차 산업혁명 분야 등의 최신 레이저 기술에 대한 강연을 한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고출력 산업용 레이저의 향후 응용(Uppcoming Applications of High Power Industrial Laser)’을 주제로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레이저기술 사례를 살펴본다.

독일과 영국, 국내기업 등 총 9개사의 개발 책임자가 자동차, 비열 가공용 레이저 레이저, 폴리머 가공, 미용·의료, 3D메탈 프린팅 등 분야에서 사용 중인 최신 고출력 레이저 응용기술을 소개한다.

행사장에는 국내 레이저 전문 기업 16개사가 생산한 대표제품과 신제품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한국광기술원은 지난해 세계 최고 수준의 킬로와트(kW)급 산업용레이저 모듈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미국, 독일, 영국 등의 레이저 강국과 기술개발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김영선 한국광기술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출력 레이저 분야의 최신 기술적용 사례와 최고 수준의 연구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며 “기술원은 앞으로도 국내 레이저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전남 14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10~19일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10일 광주 무등시장을 시작으로 19일까지 광주·전남 14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와 함께 해당 전통시장 소방시설과 소방조직 등 10개 사항을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적으로 전통시

장 화재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다중 이용 시설 화재 발생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연중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을 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지방청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전통시장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어 화재 점검에 나섰다”며 “상인들이 소방시설과 소방조직을 잘 갖추도록 유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美 세계가전박람회

삼성 인공지능 기반

라이프 솔루션 공개

삼성전자가 9일(현지 시각)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8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미래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대거 공개했다. 모델들이 전시장 입구 대형파사드 앞에서 환영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